

국내 음악영재교육 내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확대방안 모색

김희선(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박사과정수료)

1. 서론
2. 음악영재교육
 - 2.1. 음악영재의 개념
 - 2.2. 음악영재교육 운용의 실제
3. 실용음악 영재교육
 - 3.1.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현황 및 입지
 - 3.2. 실용음악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 3.3. 실용음악 영재교육 확대의 필요성
4. 결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은 2018년 '제4차 영재교육 진흥계획'을 시행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음악영재교육 역시 2002년 이후 이러한 국가정책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실용음악교육의 경우 약 8%의 분포도를 이루고 있는 반면, 대부분 클래식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

다. 결과적으로 실용음악교육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및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음악영재교육 운용 실제의 내용들과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저변 확대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음악영재교육의 실기 중심 선발 과정 관례에서 벗어나 실용음악 영재교육만의 특화된 선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 다섯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실용음악 영재 발굴을 위한 차별화된 선발과 교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제도과 지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핵심어: 실용음악, 영재교육, 음악영재, 음악영재교육, 실용음악 영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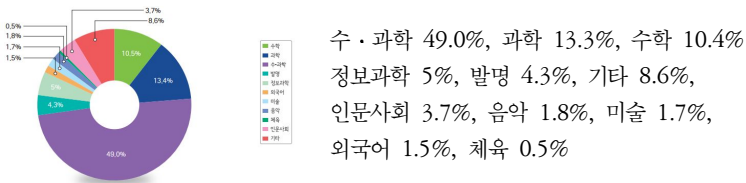
1.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식 기반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의 양성은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재교육은 2001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2002년 공표)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영재교육은 제4차 교육

진흥계획에¹⁾ 기반해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교육 지원 강화, 정보 체계화를 통한 영재교육의 활성화,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영재교육은 시행 단기간 만에 많은 성과를 거두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태진미 2009:729).

음악영재교육 역시 예술영재교육의 영역으로 함께 포함되어 연구되면서 영재교육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의 주관 아래 <예술영재교육 육성계획>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박은경 2015:31). 그러나 영재교육은 대부분 수·과학 비중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며, 음악영재교육 내에서도 다른 음악장르에 비하여 클래식 비중이 높다(박은경 2015:4)²⁾.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³⁾ 반하여 음악영재교육을 정의해보면, 음악영재교육이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 제4차 영재교육 진흥계획 [2018-2022](교육부, www.moe.go.kr)
 2) <그림 1> 국내 영재교육 분포도(한국교육개발원, 2019).



- 3) 국가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시행 2014.11.19.)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실용음악교육은 1988년 서울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과를 시작으로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많은 교육기관에 실용음악 전공이 신설되었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조승현 2018: 338). 이에 따라 실용음악교육의 필요성과 가치,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양지현·김소영·이우창 2016:150). 최근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태진미 2009:730) 실용음악 영재교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클래식에 비해 많은 부분(양적·질적)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복미 2009:8).

따라서 본 연구는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음악영재교육의 운용 실제의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실용음악 영재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의 마련 및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음악영재교육

2.1. 음악영재의 개념

일반적으로 영재라는 단어의 의미는 ‘꽃을 피운 재능’이란 뜻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용어이다. 이는 타고난 잠재력이 뛰어나야 하는 점과 동시에, 그 잠재력이 교육을 통해 계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뜻을 강조한다(이복미 2009:8). 이를 음악 영재성에 접목하여 볼 때 음악 영재성의 본질은 곧 선천적인 음악적 재능을 통해 음악적 성취로 귀결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악 영재성이란 ‘뛰어난 음악

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선천적인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태진미 2006:17).

Haroutounian은 음악영재성에 중요한 요인을 '음악 적성(Music Aptitude)', '음악적 기능과 기술(Musical Skills and Technique)', '음악 인지능력(Musical Intelligence)', '음악적 창의성(Music Creativity)'이라고 제시하였다(Haroutounian 2002). 특히 음악 적성과 지능은 자극과 음악적 경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드러나며 학습과 훈련으로 높은 수준의 음악적 사고력과 표현이 가능하도록 발달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창의성' 역시 영재에 대한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며 기존 '정교함'의 강조보다는 '창의력'을 강조하는 다각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박은경 2015:2).

그러나 음악영재성의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교육을 통한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Teplov는 음악적 재능 이외에 일반적 지능을 음악적 특성으로 함께 구분하였고⁴⁾, Karnes는 음악에 대한 강한 열망과 관심을 영재의 특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Karnes 1978). 미국의 'Jacob Javits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⁵⁾ Renzulli의 영재성 모델 3요소인 지적 능력, 과제 집착력, 창의성에 기본 바탕을 두고 음악 영재성을 기능(Skills), 동기(Motivation), 창의성(Creativity)의 틀에서 정의하기도 하였다(오주일 2004:28). 태진미(2006)는 "음악영재란 선천적 음악 소질을 바탕으로 양질의 음악 환경 속 발달된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음악적

4) 주의력 · 이해력 · 사고력 · 해석능력 · 인내력 · 의지 · 영감 · 자연에 대한 풍부한 감정 · 창조적 동기 ·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을 포함한다(태진미, 200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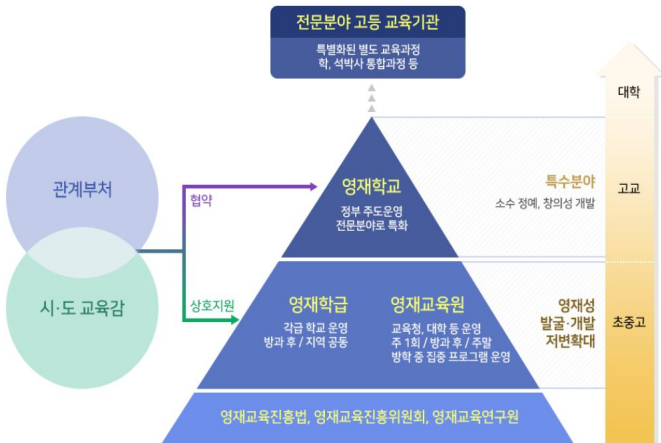
5) Jacob Javits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음악 · 연극 · 무용 분야의 영재 관별과 효과적인 영재교육 및 전문적인 교사 훈련을 위해 미국 교육부의 재정지원 하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오주일 2004:26).

재능뿐만 아니라 품성적 측면과 생산적 성취, 가능성의 조화가 어우러진 사람이다”라 주장하며 다른 재능과 음악적 재능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태진미 2006:57). 김용희(2012)의 경우 음악영재는 음악적 재능 이외에도 주의력·이해력·독창성·융통성·인내력·집착력·열정·관심·감수성·상상력·리더십·모험심·자기 조절력 등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용희 2012:463).

2.2 음악영재교육 운용의 실제

국내의 경우 2002년 시·도 교육청 산하 음악영재교육원 및 예술중·고등학교 영재교육원,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음악영재학급 등이 개설되어 공교육 차원의 음악영재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박은경 2015:3).

〈그림 2〉 국내 영재교육체계⁶⁾



6) GED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

국내 음악영재교육은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에 걸쳐 영재교육 진흥계획이 개정되었다. 1, 2차 영재교육 진흥계획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룬 음악영재교육은 교육과정과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과 조정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4차 계획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행 중이다(박은경 2015:9).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에서는 2003년 예술영재교육 육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음악영재 관별 도구 및 창의성 중심의 교수 학습개발, 음악영재교육 정책 연구 등 음악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실질적 음악영재교육체계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도 교육청 산하의 음악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학급, 전국 예술 중·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기타(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원 및 대학부설) 등의 유형이다. 전국 음악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은 서울·경기·인천·대구·대전·부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학교, 예술 학교 등에서 초·중·고 연령의 음악영재를 선발해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2021 국내 음악영재교육원 및 음악영재교육기관 현황⁷⁾

시·도	운영기관	대상	학급	분야	정원(명)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초중고(4~11)	-	클래식	100
				국악	38

7)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및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	초중고(3~11)	-	클래식	100
				국악	
	서경대 실용음악영재교육원	고(10~12)	2	실용	60
경기	강남대 음악영재교육원	초(4~6)	4	클래식	30
		중(7~9)			30
	가천대 음악영재교육원	초·중(4~9)	1	클래식	36
			1	클래식	54
	수원대 영재교육원	초(4~6)	1	국악	15
부산	부산대 예술영재교육원	초·중(3~8)	2	클래식	50
				국악	
3지역		7기관			513명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서울	중부영재교육원 (용강중)	중(7~9)	1	클래식	20
	동작관악영재교육원 (강남초)	초(5,6)	1	국악	20
	성동광진영재교육원 (신자초)	초(5,6)	1	뮤지컬	20
	강서양천영재교육원 (염창중)	중(7~9)	1	클래식	20
	국립전통예술고 영재교육원	초·중(5~9)	2	국악	60
			1	뮤지컬	
	아현산업정보고 영재교육원	고(10,11)	2	실용	40
	국립국악고 국악예능영재교육원	초(5,6) 중(7,8)	1	국악	20
1			20		
인천	인천광역시 중등예술영재교육원 (인천예술 고등학교)	초(6)	1	클래식	12
	인천광역시 예술영재교육원	초(5,6)	2	클래식	20
경기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초·중(5~8)	1	클래식	15
부산	부산광역시 예술영재교육원	초(6)	1	클래식	10
대구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중(7~9)	2	클래식	20
충북	충북예술고 영재교육원	초(4~6)	1	클래식	20
		중(7~9)	1	· 국악	20
	영춘초등학교 꿈나무영재학급	초(4~6)	1	국악	20
충남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영재교육원 (도내 초등학교)	초(4~6)	1	클래식	15

경북	안동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초(4~6)	1	국악	20
	경상북도교육청 예술영재 포항교육원	중(7~9)	1	클래식 · 실용	15
	경상북도예술영재 김천교육원	초(4~6)	1	클래식	12
		중(7~9)	1	· 국악	18
경남	양산교육청 영재교육원	중(7~9)	1	클래식	20
	김해교육청 영재교육원	초·중(5~8)	2	클래식 뮤지컬	20 20
전북	전주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중(7~9)	1	클래식	15
	전주예술중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초(3~6)	1	클래식	15
전남	진도교육청 영재교육원	초·중(4~9)	2	국악	40
	무안교육청 영재교육원	초·중(2~10)	1	클래식	20
	보성교육청 영재교육원	초(3~6)	1	국악	16
	여수교육청 영재교육원	초	-	클래식	40
		중	-		40
고		-	20		
11지역	26기관				703명
영재학급					
서울	봉영여자중학교 영재학급	중(7~9)	1	통합	12
경기	동두천 탑동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클래식	40
	포천초등학교 영재학급	초(3~6)	2	클래식	40
	경기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초(4~6)· 중(7,8)	2	클래식	40
	고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중(7~9)	1	클래식	20
강원	강원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초·중(3~8)	-	클래식	30
대전	대전산업고등학교 지역공동	고(10~12)	1	실용	20
울산	외솔중학교 영재학급	중(7~9)	1	클래식	20
	울산초등학교 영재학급	초(3~6)	3	클래식	40
	중남초등학교 영재학급	초(2~5)	1	클래식	40
	울산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초·중·고 (4~10)	1	클래식	20
충남	충남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중(7,8)	1	클래식	15

경북	포항 영일중학교 영재학급	중(7~9)	1	국악	20
	포항 창포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국악	20
	경주 금장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5)	1	실용	20
	김천 개령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국악	20
	안동 김천동신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뮤지컬	20
	안동 북주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클래식	20
	구미 문장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클래식	20
	구미 왕산초등학교 영재학급	초·중(4~9)	1	클래식	20
	구미 형일초등학교 영재학급	초(5)	1	클래식	20
	영주 동부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클래식	20
	영천 동부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국악	20
	문경 모전초등학교 영재학급	초(5)	1	클래식	20
	정평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클래식	20
	고령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국악	20
경남	동진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6)	1	클래식	20
제주	함덕고등학교 영재학급	중(7~9)	1	클래식 · 실용	20
9지역		28기관			657명
예술기관 영재교육원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초(1~5)	1	클래식	30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초·중(3~9)	1	클래식	30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초·중(4~9)	2	클래식	20
				국악	
충남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영재교육원	초(4~6)	1	클래식	15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초(5,6)	1	클래식	20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초(5,6)	1	클래식	20
5지역		6기관			135명

위의 <표-1>과 같이 2021년 운영되는 음악영재교육원 및 음악영재교육기관은 총 67기관, 음악영재교육을 받는 인원은 총 20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석(2008:38)의 연구에서 언급한 교육기관

통계보다⁸⁾ 상승된 수치로, 2008년 제2차 영재교육 진흥계획 이후 전국적으로 음악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학급이 가파른 양적 성장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국내 영재교육은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ED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⁹⁾ 도입하였다.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제4차 영재교육 진흥계획에 기반하여 질적 고도화 및 다양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¹⁰⁾ 그러나 GED 시스템 역시 수학·과학·미술영재교육에 활용성이 높으며 음악영재교육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도입이 되어있는 상태다.

음악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선발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여러 단계에 걸쳐 신중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교육청이나 영재교육기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의 선발은 1단계에서 행동 관찰, 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등을 근거로 학교장, 교사, 주변 전문가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2~3단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재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같은 일반적인 영재성을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합숙, 캠프 등을 통한 행동 관찰, 실기, 면접으로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음악영재교육의 발달에 따라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연

8) 2008년도 기준으로 클래식 음악의 경우 음악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학급을 포함해 총 15기관. 국악의 경우 국악영재교육원과 국악영재학급을 포함해 총 3기관에서 지도하고 있다.

9) GED 시스템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영재 선발과정의 복잡한 단계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사추천, 심사 결과 등을 공정하게 선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 GED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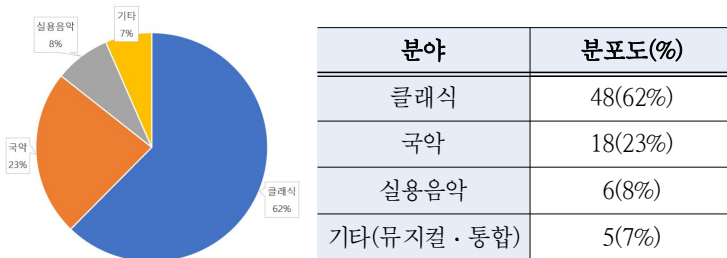
구, 음악영재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¹¹⁾ 그러나 음악영재교육연구의 대부분은 클래식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박은경 2015:34).

3. 실용음악 영재교육

3.1.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현황 및 입지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교육을 포괄적 카테고리로 보고,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경우 그 안에 내포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음악영재교육과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별개의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 안에서 파생되어있는 독립적 개체, 혹은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림-3〉, 〈표-2〉 전국 음악영재교육기관 분야별 분포도



11)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대한 연구(정진원 2011), 음악영재교육을 위한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연구(신혜경, 정진원 2012),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탐색(태진미 2009), 교육청 중심의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고찰(이미경 2010) 등이 그 내용이다.

실용음악 영재교육은 음악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체 비중에서 약 8%에만 머물고 있다.¹²⁾ 4차 영재교육 진흥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음악영재교육 내 실용음악 영재교육은 클래식에 비해 모집인원 및 기관, 지역 등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직접적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실용음악 영재교육은 고작 과거의 1차, 2차 영재교육 진흥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2021 국내 실용음악분야 영재교육원 및 영재교육기관 현황¹³⁾

시·도	분류	기관	대상	학급	인원
서울	대학부설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	고(10~12)	2	60
	시·도 교육청	아현산업정보고 음악영재교육원	고(10.11)	2	40
경북	시·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예술영재 포항교육원	중(7~9)	1	15
	영재학급	경주 금장초등학교 영재학급	초(4,5)	1	20
대전	영재학급	대전산업고등학교 지역공동	고(10-12)	1	20
제주	영재학급	함덕고등학교 영재학급	중(7~9)	1	20
4지역		6 기관			187명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으로는 2017년 신설된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이 유일하며, 시·도 교육청 소관 영재교육원으로는

12) 2021년 기준 전국 음악영재교육원 및 음악영재교육기관을 살펴본 결과, 클래식은 48기관, 국악은 18기관, 실용음악은 6기관으로 실용음악 영재교육이 가장 저조하며 분포도 역시 전체의 약 8%에 불과하다.

13) GED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

2008년 신설된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영재교육원’과 ‘예술영재 포항교육원’이 있다. 영재학급으로는 ‘경주 금장초등학교’, ‘대전산업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이 시행 중이다. 이 중 ‘예술영재 포항교육원’과 ‘함덕고등학교’는 클래식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장초등학교 영재학급의 경우 선발 일정에 GED 시스템의 활용, KEDI¹⁴⁾ 영재성 검사, 교사 관찰추천제 등의 영재교육 선발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과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사 추천제를 활용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보통 음악영재교육의 선발은 1~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선발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기 및 면접고사의 1단계 형식만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2021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 선발일정¹⁵⁾

단계		추진내용	
대상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경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 E-mail 전송. <지원자격> 가. 2021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학생 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나. 202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학생 중 실용음악 분야에서 재능과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 중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선발	1단계	실기 및 면접고사	실기100점+면접10점
합격자발표		개별 문자 발송.	

14) 한국교육개발원(KEDI: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edi.re.kr>

15)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 <https://gifted.skuniv.ac.kr>

3.2. 실용음악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실용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보다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시·도 교육청 영재교육원·영재학급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실용음악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기존 음악영재교육원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대학 부설 음악교육원의 영재교육프로그램 비교¹⁶⁾

	전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클래식·국악)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 (실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클래스 국내 저명 예술가들의 음악적 경험을 듣고 다양한 지도를 받는 수업 ▪ 창의성프로그램 듣기,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신체표현, 즉흥연주, 창작 등의 총체적인 음악활동 교육 수업 ▪ 재능나눔연주회 음악적 재능 나눔 수업 ▪ 통합이론교육 음악의 기초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감상 등 통합이론수업 ▪ 세종체임버홀연주 전문연주장에서 연주회 실습수업 ▪ 국악실기 국악을 접하고 배우며 음악적 시각을 넓히는 수업 ▪ 합창/기악앙상블 음악적 효과 외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 과정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스수업 실용음악통론, 시창청음, 화성학 등 기본적인 실용음악의 기초이론교육수업 ▪ 전공실기수업 1:1로 진행되는 전공실기교육 수업 ▪ 그룹레슨 전공별로 모여 진행되는 그룹레슨 수업 ▪ 작곡수업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곡 수업 ▪ 앙상블 악기간의 협동심을 기르는 수업 ▪ 발표회 교육 후반기에 진행하며 서경대학교 내 공연장에서 실시

16) 전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http://musicnedu.konkuk.ac.kr>
서경대학교 실용음악영재교육원, <https://gifted.skuniv.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도입과정 전공별 특성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 실습수업 ▪ 발상의 표현 음악 이외의 다른 예술을 통한 새로운 발상의 연결, 아이디어 탐색 수업 		
과정	일반영재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실기교육 ▪ 통합이론과정 ▪ 음악실기수업 ▪ 연주 및 특강 	통합과정
	미래영재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도입 실기교육 ▪ 창의성음악수업 	
	국악영재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실기교육 ▪ 국악기초이론 ▪ 앙상블수업 	
시간	매주 월·토 50분간 4교시 진행 여름방학 집중교육수업진행	겨주 토요일로 50분간 4교시 진행 여름방학 집중교육수업진행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은 마스터 클래스·창의적 프로그램·발상의 표현 등과 같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반면, 서경대 실용음악영재교육원의 경우 기존 실용음악 전공수업 별반 다르지 않은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 사고·확산적 사고·감수성·상상력 등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서경대의 경우 대학 부설 실용음악영재교육의 첫 시행 학교로서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⁷⁾

17) 이원지. <서경대, 국내 대학 최초 '실용음악영재교육원' 설립>, e-대학저널, 2017. 7.9.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64>

〈표 6〉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¹⁸⁾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음악영재교육원(국악·뮤지컬)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음악영재교육원(실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창청음 음악기초수업 ▪ 기초타악 기본적인 리듬수업 ▪ 인문·예술·창의 창의적인 인재함량을 위한 교육 수업 ▪ 안무 뮤지컬안무수업 ▪ 전공수업 한국음악 전공별로 실기수업 ▪ 뮤지컬성악 뮤지컬 발성 및 실기수업 ▪ 관소리 ▪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론 실용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수 업 ▪ 시창청음 ▪ 전공실기 전공별로 진행수업 ▪ 현장체험학습 공연관람, 스튜디오 등 현장방문 체험수업 ▪ 앙상블 ▪ 녹음실습 〈여름방학캠프〉 ▪ 특강수업 삶속에서의 실용음악적 접근, 음악 장비에 관련된 창의적 주제의 특강 수업 ▪ 인성교육 창의적 인재 함량을 위한 인성교육 수업 ▪ 댄스와 실용음악 댄스를 통한 음악리듬감 수업
과정	한국음악분야	통합과정	통합과정
	뮤지컬분야	통합과정	
시간	월~토 학급별로 50분간 2교시 교차 수업 여름방학 집중교육수업 진행		겨주 토요일 50분간 4교시 진행 여름방학 집중교육수업 진행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http://kugak-am.hs.kr/>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http://www.ahyeon.sc.kr>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국음악(국악)과 뮤지컬 분야의 영재성을 띤 학생을 모집·교육하고 있으며,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는 실용음악에 영재성을 띤 학생을 모집·교육하고 있다. 아현산업정보고의 경우, 기존 실용음악교육 방식에 창의적 인성교육과 현장 체험을 통한 교육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집중교육 수업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표 7〉 영재학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¹⁹⁾

	포천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 (클래식)		금장초등학교 음악영재학급 (실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론 ▪ 악기실기교육 ▪ 오케스트라 합주 ▪ STEAM교육 <교과 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 ▪ 캠프활동 ▪ 봉사활동 ▪ 산출물 연구활동 ▪ 연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음악이론 ▪ 악기연주실기 ▪ 공연문화체험 ▪ 야외체험학습
과정	관악반	통합과정	통합과정
	현악반	통합과정	
시간	매주 수요일 방과 후 40분 기준 2교시 교과수업, 2교시 실기수업 여름방학 집중교육수업 진행		매주 수요일 방과 후 40분 단위 3교시 수업진행 연1회 야외체험학습 여름방학 집중교육수업 진행

19) 포천초등학교, <http://www.pochon.es.kr/>
 금장초등학교, <http://school.gyo6.net/>

클래식 중심의 음악영재학급을 진행하는 포천초등학교와 실용음악영재학급을 진행하는 금강초등학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포천초등학교의 경우 STEAM²⁰⁾ 교육 진행을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반해, 금강초는 실용음악이론과 실기, 야외 문화체험과 학습으로 비교적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존 실용음악교육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3.3. 실용음악 영재교육 확대의 필요성

영재교육은 헌법 제31조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고난 잠재성의 발휘를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75). 이는 음악영재교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영재교육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실용음악교육 역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김창대 2013:50). 지식 기반사회에서

20) STEA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은 전세계의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기술과 행할 밀착형 기술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각 교과군별 예술적 수업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석문주·최미영·정다운·정지혜 2014:336).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창의적인 인력 양성이 대두되는 바,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의 확대 시행은 마땅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영재교육을 포괄적 카테고리로 인식하였을 때 실용음악 영재교육은 그 안에 내포된 작은 단위의 카테고리로 규정할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황은지·한경훈(2020)은 음악교육과 실용음악교육 간의 관계성에 대해 음악교육계가 실용음악교육에 대해 별개의 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실용음악교육은 태생부터 음악교육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음악교육과 실용음악교육 모두 서로를 아우르는 포괄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보고 있다(황은지·한경훈 2020:56).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정의한 두 음악교육 간 포괄적 관계성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Haroutounian(2002)이 음악영재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음악적성’, ‘음악적 기능과 기술’, ‘음악 인지능력’, ‘음악적 창의성’은 실용음악 영재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Sternberg(1993)가 주장한 영재성 오각형 이론인²¹⁾ ‘수월성(excellence)’, ‘희귀성(rarity)’, ‘생산성

21) 무엇이 영재를 만드는가에 대해 Sternberg(1993)는 일반적으로 또래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분야에서의 수월성(Excellence), 일반인들에 비해 보기 드문 희귀성(Rarity),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수 있는 생산성(Productivity),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입증되는 논증 가능성(Demonstrability), 재능을 보이는 분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Value) 등 다섯 가지 특징을 언급했다. 이를 실용음악 영재성에 적용해 보면 실용음악에 대한 수월성, 일반인에 비해 뛰어난 실용음악 능력을 나타내는 희귀성, 잠재적인 음악 능력을 바탕으로 실용음악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성, 실생활에 경험을 통해 실용음악 재능이 발휘되고 논증되는 논증 가능성, 마지막으로 실용음악 영역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과거 실용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이

(productivity)', '논증 가능성(demonstrability)', '가치(value)'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복미 2009: 25). 결과적으로 음악영재교육, 나아가 영재교육 전반에서 언급하는 주요 요인들 모두 실용음악 영재교육에 고스란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영재교육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태진미(2006)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태진미 2006:88).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영재교육의 발달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음악영재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적 이익 및 문화강국으로의 성장이 그 이유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실용음악 분야에 남다른 애착과 열정을 보이며 영재성을 띠는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실용음악의 창의적 활동을 위한 적절한 환경 제공은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신체적·사회적 성장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실용음악 분야에 영재성을 띠는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마땅히 확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용음악 능력의 효과적인 잠재력 발휘를 위해 시기에 맞는 영재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음악적 능력과 잠재력이 어린 시절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전문 활동으로 향상될 수 있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²²⁾ 실용음악 분야에서도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조기에

강조된다는 점에서 클래식과 비교되며 저급음악으로 분류되었던 실용음악은 오늘날 대중성, 상업성, 예술성에 기반하여 그 가치를 두고 있다 평가되고 있다(이복미 2009: 24-27).

- 22) Sargent는 청각 기능의 경우 5세경에 이미 성인 수준에 도달하고, 음고의 지각 능력과 리듬감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는 절대음감 능력이 어린 시절 전문교

제공함으로써 훗날 뛰어난 영재성 발현의 기초가 되는 음악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첫째, 실용음악 영재의 효율적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 영재교육이 잠재력과 능력 함양에 교육목표를 둔 데에 반해, 실용음악 영재들은 ‘비즈니스’와 직결되어 상업적 트레이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수정 2021:56). 실용음악교육이 대학과정 중심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확대 도입은 실용음악 영재의 효율적 선발을 위해 마땅히 요구되어야 할 선행과제이다. 둘째, 국가적 이익과 문화강국을 위해 실용음악 영재교육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있으며, 실용음악교육 역시 ‘창조적 음악인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 육성’의 목적을 가진다. 이는 영재교육과 실용음악교육 모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이렇듯 음악영재교육 필요성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는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편승 될 때, 비로소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복미(2009)는 영재학급을 대상으로 한 실용음악 영재교육 인식 연구를 통해 실용음악 전공생들이 실용음악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영재교육 학생들 역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이복미 2009:75). 이러한 결과는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현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육의 습득률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유덕희, 1973:190).

개선되기를 원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현황과 입지, 커리큘럼 비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용음악 분야의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배양하기 위해선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차별화된 시스템 확대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4.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화 기반사회, 창의력이 대두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도 영재교육 진흥계획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질적 고도와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음악영재교육 역시 국가적 정책의 흐름에 맞춰 꾸준히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주로 클래식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경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실용음악 영재교육에 대한 상세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용음악 영재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저변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음악영재교육원 및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총 6개로, 전체 음악영재교육 분포도의 약 8%에 그치고 있다. 이는 클래식과 국악영재교육에 비해 서도 현저히 적은 수치이다. 오늘날 실용음악에 대한 교육적 가치 향상과 저변 확대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정작 실용음악 영재들은 국가의 지원 제도 아래가 아닌 기획사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상업적 시스템 아래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영재교육의 목적이 ‘재능을 조기 발굴하여 잠재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한류의 핵심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매개이자 주요 장인 실용음악이야말로 무엇보다 국가적 개입,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영재교육의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기존 음악영재교육의 실기 중심 선발 과정의 관례에서 벗어나 실용음악 영재교육만의 특화된 선발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영재교육은 GED 시스템을 통해 전국 영재 발굴의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영재성 검사와 교사 관찰추천제 등을 통해 영재 선발의 오류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음악영재교육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대부분이 실기 중심으로 치우쳐 있기에 무엇보다 실기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태진미(2006)의 연구에서 음악 영재를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실기우수자 우선 선발의 경향은 잠재적 음악 능력을 내포한 포괄적 영재교육 대상자의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과거 음악영재교육의 선발에서의 문제점들을(태진미, 2006:218-222)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적 잠재력을 내포한 포괄적 영재선발을 위한 실용음악 영재교육만의 특화된 선발기준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영재교육은 제4차 진흥계획에 따라 '수학·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영재교육 내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경우 운

영하는 교육기관의 개체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구성 역시 기존 실용음악대학 및 실용음악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은 음악적 능력과 잠재력 개발을 도모하면서도 김용희(2012)가 언급한 주의력·이해력·독창성·융통성·인내력·집착력·열정·관심·감수성·상상력·리더십·모험심·자기 조절 등의 일반적 영재 자질 개발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용희 2012:463).

넷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여느 분야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실기 활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용음악 영재교육에서 담당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대로 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영재교육은 실용음악 영재들의 높은 성취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풍부한 교육 인적자원이 포진되어 있는 수학·과학 영재교육과는 달리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경우 영재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관리할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 교육 인력지원·확충·양성 시스템에 대한 영재교육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용음악 영재교육을 전담할 교사를 육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연수 및 인력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음악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서·도 교육청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박은경 2015:97). 또한 상대적으로 국가 예산을 비롯해 교육 인프라와 인력이 풍부한

수학·과학 분야에 비해 음악영재교육의 지원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태진미 2009:748). 앞서 언급했듯이 실용음악 영재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 도입은 향후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및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가 차원의 실용음악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수립한 후,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실용음악 영재교육기관의 수준 높고 체계화된 환경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기관마다 상이한 교육과정이 아닌 실효성 높은 교육적 이해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 영재교육에 대한 긍정적 발걸음을 위한 초석을 구축함에 의의가 있다. 향후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유덕희. 1973. 「음악 교육학 개론」, 학문사.
- 태진미. 2006. 「음악영재교육」, 예종.
- Haroutounian, J. 2002. “Kinding the spark:: Recognizing and developing musical talent”.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 학회지 논문

- 김용희. 2012. 「음악영재학생 부모의 배경 및 영재발달 환경 인식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6(2),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461-480.
- 석문주 · 최미영 · 정다운 · 정지혜. 2014. 「음악 교과 중심의 초등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8(2),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365-385.
- 신혜경 · 정진원. 2011. 「음악영재 교육을 위한 음악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 『음악교육연구』. 41(1), 한국음악교육학회: 25-47.
- 양지현 · 김소영 · 이우창. 2016. 「실용음악 교육의 수요 증가와 교육 불균형에 대한 연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실용음악학원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016(2),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149-154.
- 이미경. 2010.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39, 한국음악교육학회: 157-182.
- 정진원. 2011.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0(1), 한국음악교육학회: 1-31.
- 조승현. 2018. 「실용음악분야의 교육과 정책 개선안에 대한 제언-학회의 설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 한국산학기술학회: 337-345.
- 태진미. 2009.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탐색」 『영재교육연

구』19(3), 韓國英才學會: 729-958.

한국교육개발원. 2009. 「영재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 3기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연수: 교사추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집중과정」 한국교육개발원: 53~55.

황은지 · 한경훈. 2020. 「실용음악교육의 융합인재교육(STEAM) 활용 당위성에 대한 고찰」 『문화와융합』 42(1), 한국문화융합학회:43-61.

Sternberg, Robert J. 1993. “The concept of ‘giftedness’: A pentagonal implicit theory”.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gh ability. 5-21.

Karnes, M. B. 1978. “Nurturing Talent in the Visual and Performing Arts in Early Childhood: Art and Music”. 1-52.

3. 학위 논문

김창대. 2013. 「실용음악 교육과정 현황에 관한 연구: 실용음악전공 개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은경. 2015. 「국내 음악영재교육 운영실태(2002-2015) 및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오주일. 2004.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음악영재성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복미. 2009. 「실용음악 및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시·도 교육청 음악영재학급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수정. 2021. 「영재교육 관점으로 살펴보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용석. 2008.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4. 기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영재교육 실무편람>.

한국교육개발원. <2019 영재교육 통계연보(SM2020-01)>

5. 웹사이트 및 인터넷 기사

가천대 예술영재교육원, <http://www.gatei.or.kr/>

강남대 예술영재교육원, <https://web.kangnam.ac.kr>

광주광역시교육청, www.gen.go.kr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 <http://musicnedu.konkuk.ac.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금강초등학교, <http://school.gyo6.net/>

대구광역시교육청, www.dge.go.kr

대전광역시교육청, www.dje.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부산대 예술영재교육원, <https://giftedart.pusan.ac.kr/>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http://www.ahyeon.sc.kr>

예술의전당, <http://www.sacticket.co.kr/>

이원지. <서경대, 국내 대학 최초 ‘실용음악영재교육원’ 설립>, e- 대학저널,
2017, 3. 9. <http://www.dhnews.co.kr/news/>

인천광역시교육청, www.ice.go.kr

서경대학교 실용음악 영재교육원 <https://gifted.skuniv.ac.kr>

서울시교육청, <http://www.sen.go.kr>

청주교육지원청, www.cbcje.go.kr

포천초등학교 <http://www.pocheon.es.kr/>

한국예술영재교육원, <http://kriga.karts.ac.kr>

GED영재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

Abstract

Solution Search for Expansion of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from the Gifted Music Education in Korea

Kim, Hee Sun

(Completed Ph.D in the Department of Mental and Physical Integrated Therapy at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modern society is changing into an information age and knowledge-based society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is situation, the gifted education has been sought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4th Gifted Education Promotional Plan' in 2018. Since 2002, the gifted music education in Korea has also been steadily expanding along with the national policies. With looking into details, the applied music education has a distribution of about 8%, on the other hand, the most cases are mainly focused on classical music. As a resul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support the gifted education and national support program for fostering talent in the applied music educa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gifted music education with the actual contents of the operation of the gifted music education, and then the following five solution searches for expansion were sought. First,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the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should be priorit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conventional practice-oriented selection process of the gifted music education, then the specialized selection criteria for the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should be introduc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itable program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gifted education of the applied music. Fourth, it is urgent to cultivate professional instructors who can teach the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Fifth,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of the na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and it aims to expand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ed selection and introduction of an education system to discover the gifted students in the applied music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finding practical and specific solutions for

national system and support.

Key words : Applied Music, Gifted Education, Music Gifted Students, Music Gifted Education, Gifted Education in the Applied music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27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2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5일

